논어 19편 자장 14장 · 원문·풀이

子游曰：「喪致乎哀而止。」

독음 · 자유왈 상치호애이지

쉬운 풀이(요약) · 상례는 슬픔을 충분히 표현하는 데까지이며 지나친 형식으로 치우치지 않는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游 헤엄칠 유 유 / 曰 가로 왈 / 喪 죽을 상 상

致 이를 치 치 / 乎 어조사 호 / 哀 슬플 애 애 / 而 말이을 이

止 발 지 지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